

Kwangdong
광동 침향환
2,000만원
판매 돌파!
| 무료상담 | 1899-1260

중앙일보

2026 미래엔 공모전
손글씨 & 창작글감
응모 기간 | 2026. 4. 3.~9. 30. 미래엔 공모전 바로 가기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호르무즈와 핵, 달라진 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데이나 화이트 UFC CEO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서 한 아이가 국기를 흔들고 있다. [AFP·UPI=연합뉴스]

미국·이란, 106일 만에 종전 합의 봉쇄됐던 호르무즈, 원상태로 개방 이란 핵문제 미루고 60일내 재협상 해협 통행료 등 이견, 불씨는 여전 19일 서명식, 트럼프 참석 검토중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사실을 알리며 한 말이다. 이로써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일단 멈춰서게 됐다.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도 15일 성명을 통해 “SNSC의 승인으로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MOU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이 미국과 이란 둘 다 한계에 이르면서 성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가 부담이었고, 이란은 미군의 해상 봉쇄로 인한 경제난 심화, 전면전 재개 시 체제 생존이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합의 수용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동중에서 전쟁이 멈추고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방될 거란 소식에 글로벌 금융과 에너지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을 “위대한 합의”로 규정하며 “전 세계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익계산을 뜯어보면 트럼

프 행정부로서 ‘상처받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메흐르통신이 합의 발표 직전 보도한 14개 항의 MOU 초안은 ▶미국과 이란 양측이 60일간 휴전하고 ▶30일 이내에 호르무즈해협 재개방과 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완료하며 ▶휴전 기간(60일 내) 이란 핵 문제를 협상한다는 게 골자다. 휴전 기간 이란 동결 자금 240억 달러를 해제하고 이 중 절반은 협상 개시 전 먼저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 명분으로 삼은 건 ‘이란의 압박한 핵 위협’이었는데, 정작 핵심 쟁점인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미룬 셈이다. 60일 내 핵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지만, 쉽지 않을 거란 반응이 많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3면 '종전 합의'로 계속, 관계기사 2, 4, 5면

대통령, 병원 폐이백에 “명백히 불법”

(요양·한방)

본지 보도에 “좋은 지적, 시정해야”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일부 요양·한방 병원에서 이뤄지는 ‘폐이백’ 관행을 두고 명백한 불법인 만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행정조사에 나서 법 위반이 확인된 병원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X(옛 트위터) 계정 에암 치료를 내세운 요양·한방병원의 폐이백 문제를 지적한 기사(중앙일보 6월 15일자 1·8면)를 올리고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X에서 “(폐이백은)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곤 “오늘부터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요양병원의 불법 폐이백, 실손보험 악용이 의심되는 비급여 진료, 환자 유인 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 의약품 합동수사팀(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 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중훈·채혜선 기자

▶ 6면 '수상한 요양병원'으로 계속

▶ 2면 'FIFA 월드컵 아시아 4강, 시작이 좋다' ▶ 16면 '공한번 차기 힘든 이란' ▶ 18면 '스승과 대결 앞둔 이강인' ▶ B6면

2026년 國民株를 公募합니다

AI는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의 시작입니다
알통 AI는 인간지능이 참여하는 확실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 개요

-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알통
 -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일: 2026년 5월 15일
 - 모집 증권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6,600주
 - 예상가액: 15,000원
 - 청약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 환불 및 주금 납입일: 2026년 6월 23일(화)
 - 청약금 납입계좌: 국민은행 001590-17-600985(주)알통
- ※ 청약금 입금 전 반드시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청약 관련 사항]
청약방법: 당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altong.com) 신청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 확인자이어야 합니다.
청약 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함
※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되며 이자는 없음
청약 수량: 1인당 최소 청약 수량은 200주 최대 청약 가능 수량은 10,000주(청약단위는 10주)
청약 취급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31 (코오롱빌라드 2차 905호)
(주)알통AI 경영지원팀 전화: 02-330-3000
• 관련 공시 서류는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공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 및 환불 관련 사항]
배정방법: 초과 청약 시 청약 증거금 입금 선착순으로 배정함
※ 공모 후 청약 주식 수가 공모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 증거금 입금 선착순에 따라 배정이 되며 최종 순위 배정자의 경우 청약 주식 수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정 공고 및 초과 청약금 환불 통지: 2026년 6월 23일(화)
• 환불 및 주금 납입일: 2026년 6월 23일(화)
※ 주식청약금 및 초과 청약금 환불 등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3의 2조를 반영하여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주)과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반환 전까지 초과 청약금 인출 목적 외의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 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 될 예정입니다.



전화문의 (02)330-3000

알통 주식회사 알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코오롱디지털타워빌라드 2차 905호

www.altong.com